



김효주가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월린드 골프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2타차 우승을 차지한 뒤 동료들의 축하 속에 기뻐하고 있다.

LPGA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승에 선착했다.

김효주(30)는 30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월린드 골프 클럽(파 72-667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 상금 225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하나, 더블보기 하나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28언더파 260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2위 넬리 코르다(미국·26언더파 262타)를 두 타 차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3만7500달러(약 5억1000만 원)다.

김효주는 지난해 파운더스컵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포드 챔피언십에선 지난해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다. 그의 LPGA 통산 승수는 9승으로 늘었다.

2014년 비회원으로서 참가한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이듬해부터 LPGA 투어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김효주는 처음으로 한 시즌 '다승'을 달성하는 기쁨도 누렸다. 아울러 그는 올해 LPGA 투어 6개 대회 만에 처음으로 시즌 2승을 거둔 선수도 됐다.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은 지난해 블루베이 LPGA에서 이미향이 우승을 차

포드 챔피언십 260타 2연패 2주 연속 우승... 통산 9승째

지한 데 이어 김효주가 파운더스컵과 이번 대회를 제패하며 3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합작한 것은 2019년 2~3월 양희영(혼다 LPGA 타이랜드), 박성현(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고진영(파운더스컵) 이후 7년 만이다.

3라운드까지 25언더파 191타로 LPGA 투어 54홀 최소타 신기록을 작성했던 김효주는 72홀 최소타(31언더파 257타)에도 도전했으나 이 기록에는 3타 차로 미치지 못했다.

3라운드까지 2위 코르다에게 4타 차로 앞선 김효주는 파운더스컵 최종 라운드부터 5개 라운드 연속 코르다와 동반 플레이에 나서서 우승 경쟁을 펼쳤다.

이날 초반엔 코르다의 기세가 조금 더 좋았다. 2번 홀(파5) 이글로 기선을 제압한 코르다는 이를 시작으로 7번 홀(파5)까지 4타를 줄였다.

7번 홀까지 3타를 줄이는 만만치 않은 경기력으로 우위를 이어 나가던 김효주는 8번 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다. 샷이 연이어 흔들리며 더블 보기를 적어내 코르다

한 시즌 처음 2승... 기쁨 두배 전인지 5위... 윤이나 공동 6위

LPGA 투어 미국여자프로골프 김효주 통산 9승 기록

2014년 9월	에비앙 챔피언십
2015년 3월	JTBC 파운더스컵
2016년 1월	퓨어실크 브라마 LPGA 클래식
2021년 5월	HSBC 우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4월	롯데 챔피언십
2023년 10월	어센던트 LPGA 페니핑 VOA
2025년 3월	포드 챔피언십
2026년 3월 23일	포티넷 파운더스컵
2026년 3월 30일	포드 챔피언십(시즌 2승)

에게 한 타 차로 바짝 쫓긴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홀(파4)에서 코르다의 짧은 파 퍼트 실수로 김효주는 두 타차 선두를 달려 한숨을 돌렸다.

이어진 10번 홀(파3)에서는 김효주가 완벽한 티샷으로 탭인 버디를 낚았고, 코르다는 또 보기를 써내면서 두 선수의 격차는 다시 4타로 벌어졌다.

샷과 퍼트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코르다는 15번 홀(파3)에서 다시 3퍼트 보기를 기록했고, 김효주는 5타 차로 앞서 나가며 승기를 잡았다.

코르다는 17번 홀(파5) 이글을 작성해

김효주를 3타 차로 추격했고,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했으나 순위를 뒤집지엔 못했다.

김효주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날이 오네요"라며 "기본 좋게 파닉스에 왔는데 디펜딩 챔피언으로 우승해서 더 기분이 좋다. 2주 연속 우승은 처음 해봤는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넬리(코르다)와 경쟁을 하지만, 보고 배우면서 됐다. 덕분에 같이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르다는 2개 대회 연속 김효주의 벽에 막혀 준우승했으나 이번 시즌 출전한 3개 대회에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를 기록했다. 가스 미나미(일본)가 최종 라운드에서만 7언더파를 몰아치며 3위(23언더파 265타)에 올랐고,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4위(20언더파 268타)로 뒤를 이었다.

전인지는 5위(19언더파 269타)에 올랐고, 윤이나는 공동 6위(18언더파 270타)로 지난해 LPGA 투어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냈다.

이소미와 이일희는 공동 15위(14언더파 274타), 유해란과 임진희, 안나린은 공동 29위(12언더파 276타), 최혜진과 최운정은 공동 42위(10언더파 278타)에 자리했다. 세계랭킹 1위 지노 티피쿤(태국)은 공동 50위(9언더파 279타)에 그쳤다.

클사잔-연합뉴스

우승 후보 LG·삼성 2연패 '삐끗' KIA·두산과 3연전... "자존심 회복"

프로야구 전망대



2026 신한 SOL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대다수 전문가가 꼽은 우승 후보는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다.

두 팀은 탄탄한 마운드와 짜임새 있는 타선으로 올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팀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LG와 삼성은 개막 2연전에서 각각 kt wiz, 롯데 자이언츠에 일격 당해 2패씩 떠안고 시즌을 시작했다.

이제 두 팀은 올 시즌 첫 주중 3연전에서 승리를 향해 다시 나선다.

창단 첫 2연속 우승을 노리는 지난해 우승팀 LG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잠실구장에서 KIA 타이거즈와 맞붙는다.

KIA 역시 개막 2연전에서 SSG 랜더스의 강력한 타격에 흔들린 2패 팀이다.

LG는 31일 경기에 외국인 투수 앤더스 툴러스트를 선발 마운드에 세운다.

툴러스트는 지난해 대체 외국인 선수로 LG 유니폼을 입고서 정규시즌 8경기 6승 2패, 평균자책점 2.86으로 활약했고 한국시리즈에서는 혼자 2승을 따내는 역투로 통통 우승 일등 공신이 됐다.

시즌 초반 LG는 예상치 못한 선발진의 줄부상으로 신음한다.

개막전 선발로 나선던 요니 치리노스는 1이닝 6실점으로 못매를 맞고 허리 통증 때문에 정밀 검진을 받는다.

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했던 손주영도 옆구리 근육 손상 진단으로 다음 달 말 복귀할 전망이다.

당초 LG는 툴러스트가 화요일 경기인 31일 잠실 KIA전에 나서고, 일요일 경기인 다음 달 5일 카움 히어로즈전에는 툴

러스트 대신 손주영을 쓰려고 했다.

부상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져 툴러스트의 주 2회 등판이 불가피해졌고, 그의 어깨에 시즌 초반 LG 행보가 달렸다.

승리가 급한 건 KIA도 마찬가지다. KIA는 SSG와 2연전에서 타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합계 18실점으로 마운드가 무너졌다.

선발로 나설 전망인 에덤 올리는 올해 KBO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다. 지난 시즌 LG를 상대로는 3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2.37로 승운이 따르지 않은 가운데서도 제 몫을 했다.

또 다른 '우승 후보' 삼성은 개막 2연전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외국인 '원투 펀치'에 당했다. 이번 주에는 주중에 두산 베어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이고, 주말에는 kt와 방문 3연전을 치른다.

최형우 영입으로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받은 삼성 공격력은 롯데와 2연전에서 별다른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시즌 팀 홈런 1위(16개)를 차지했으나 롯데 타자들이 이를 동안 7개를 답장 밖으로 보내는 동안 삼성은 홈런이 하나도 없었다.

타선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야구 격언대로, 타선이 눈을 떠야 올 시즌 삼성은 계획대로 시즌을 풀어갈 수 있다.

KBO리그 최초의 팀 3000승 대기록을 눈앞에 둔 삼성은 빨리 '아홉수'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돌아오는 게 이번 주목표다. 수많은 악재에도 삼성을 두 차례 잡은 롯데는 창원NC파크에서 NC다

이노스와 주중 '낙동강 데비'를 치른다. 외국인 투수가 강력한 모습을 입증한 가운데 박세웅~나균안~김진욱으로 이어지는 국내 선발 삼총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시즌 초반 순항을 이어갈 수 있다.



2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관중석이 팬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인생에서는 여러분도 장군이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임관빈 지음
개정 신국판
20·30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청춘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메시지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